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399>

JCCT 2023-3-50

외부활동, 온라인활동, 미디어이용, 미디어정보평가, 가계경제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친 영향

Effects of External Activities, Online Activities, Media Use, Media Information Evaluation and Household Economic Changes on Corona Blue

오대영*

Oh Dayyoung*

요약 코로나블루 발생 원인을 분석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찾아보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블루가 더 심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줄고, 가계경제는 어려워져 코로나블루가 늘었다. 늘어난 미디어이용량과 부정적인 미디어정보문제는 코로나블루를 증가시켰다. 온라인활동은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디어이용으로 증가한 사회문제관심은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우울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외부활동을 늘리고, 여성과 경제적 약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더 개선하고, 미디어의 재난정보 품질을 높이고, 수용자는 미디어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어 : 코로나블루, 외부활동, 미디어이용, 미디어정보평가, 온라인활동, 가계경제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of Corona Blue and tried to find out ways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our society. The external activities decreased and the household economy got worse after COVID-19, so Corona Blue increased. The media use and the negative media information problems increased Corona Blue. The online activities had no effects. In order to relieve Corona Blue, it was suggested to increase the external activities personally, to make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women and the economic weaker better,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a disaster information, and for the media consumer to use the media properly.

Key words : Corona Blue, external activities, Media use, Media information evaluation, Household economy

I. 서론

2020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많은 사회문제가 일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웃이나 친구 관계가 떨어진 노인은 외로움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1]. 코로나19 이후 안전우려와 고용불안으로 심화된 우울 증세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2]. 한국에 있는 외국 대학생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을 느끼고 근심과 우울감을 갖게

*정회원,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2월 16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4일

Received: February 16, 2023 / Revised: March 7, 2023

Accepted: March 14, 2023

*Corresponding Author: dayyoung@gachon.ac.kr

Dept. of Media Communication, Gachon University, Korea

되었으며, 그런 현상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3]. 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파키스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4].

코로나19로 나타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현상을 코로나블루(Corona Blue)라고 한다[5]. 코로나(Corona)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Blue)를 합친 신조어이다. 2020년 1~8월 국내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된 코로나블루 관련 부정적인 내용에서는 우울감, 불안, 무기력증 등이 주요 키워드이었다[6].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 69만1164명에서 2021년에는 93만3481명으로 35.1% 증가했다[7]. 코로나블루가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코로나레드(Corona Red)현상도 발생했다[8]. 사회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고, 자살문제가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6월 우리 국민에서 우울위험군은 16.9%로 2019년의 3.2%보다 5배가 넘었다. 자살 생각율도 12.7%로 2019년의 4.6%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9]. 인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감염과 경제난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10].

우울증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국가(OECD)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11].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우울증 환자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울증 증세이므로, 이 연구는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우울증 원인을 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1.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미디어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건강,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

이다. 노인들의 경우 건강 관련 생활습관, 정신건강, 만성질환, 영양섭취 등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12]. 일반 사람들은 비만할수록 슬픔이나 절망감을 더 자주 느꼈다[13]. 반면 장소를 이동하는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감소하였다[14].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자신에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적었다[15].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는 낮은 지위에 있는 노인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확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높았다[16].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입이 줄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집단에 속할 확률이 3.3배 높았다[17].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최고 등급인 펜데믹으로 규정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어서, 감염에 대한 공포가 매우 심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위험지각과 감염 불안감이 코로나블루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18].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울려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노인들은 사회연결망 수준이 높고, 사회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낮아졌다[19]. 학생들의 경우 교우관계가 활발하면 우울감을 덜 느꼈으며[20], 친구가 많으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줄었다[2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감염위험 걱정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주변과의 단절을 많이 우려했다[8].

소셜미디어 이용은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22].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타인과 의견 충돌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 등 의존지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더 증가하였다[20].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독군은 비중독군보다 우울 정도가 4배 정도 높았다[23].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많아져 사회적 혼란, 과도한 불안, 공포를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들이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쉽게 접하는 소셜미디어 환경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증폭되었고, 우울증 현상은 심해졌다[17].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블루의 원인을 감염 불안감, 경제적 타격 불안감, 코로나19에 대한 무분별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불안감 등 세 가지로 규정했다[5].

한편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증 증세가 심해[19],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집단에 속할 확률이 2.2배 높았다[17]. 여성은 사회활동, 결혼, 직장 등의 환경에서 남성보다 불리해서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4].

2. 연구모형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1: 성,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외부활동, 온라인활동, 미디어이용, 코로나19 미디어정보 평가, 가계경제변화 등 5개 요인이 코로나블루에 주는 영향을 알아본다.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면 정치적 학습효과가 발생해서 수용자의 정치적 관심이 증대한다[25].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대응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다. 수용자는 미디어로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는 코로나블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1: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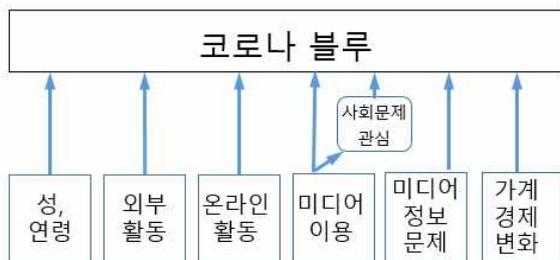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0년에 만든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보고서의 원본데이터를 재단에

서 받아서 분석하였다[26]. 조사업체인 마켓링크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 비례에 기초한 다단계 층화추출 방식으로 정한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21일부터 9월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원본데이터이다. 1000명은 남성 509명(50.9%), 여성 491명(49.1%)이었다. 연령은 만 나이로 조사됐으며, 19~69세에 분포했다. 연령대로 분류하면 19~20대 193명(19.3%), 30대 186명(18.6%), 40대 221명(22.1%), 50대 235명(23.5%), 60대 165명(16.5%)이었다(표1).

표1. 조사대상자 특성

Table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

성	남자	509(50.9)	여자	491(49.1)
연령	19~20대	193(19.3)	50대	235(23.5)
	30대	186(18.6)	60대	165(16.5)
	40대	221(22.1)		
지역	서울	196(19.6)	경기	257(25.7)
	부산	66(6.6)	강원	31(3.1)
	대구	47(4.7)	충북	31(3.1)
	인천	60(6.0)	충남	40(4.0)
	광주	27(2.7)	전북	32(3.2)
	대전	31(3.1)	전남	32(3.2)
	울산	23(2.3)	경북	49(4.9)
	세종	5(5.0)	경남	64(6.4)
			제주	9(9.0)

2. 조사항목

1) 종속변인

코로나블루는 불안, 무기력감, 짜증, 특정대상 분노, 걱정, 우울 등 6개 감정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1= 많이 감소, 2= 조금 감소, 3= 변화 없음, 4= 조금 증가, 5= 많이 증가)로 조사했다. 평균점수는 불안 3.77($SD=.787$), 무기력감 3.59($SD=.757$), 짜증 3.70($SD=.752$), 특정대상 분노 3.76($SD=.854$), 걱정 3.96($SD=.727$), 우울 3.51($SD=.695$)이었다. 모든 감정이 증가했다. 분석은 6개 항목을 합친 '코로나블루' 변수로 하였다. 6개 항목의 신뢰도(크론바흐 α)는 .825이며, 평균은 3.71($SD=.557$)이었다. 신뢰도는 측정문항들이 조사변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27].

2) 독립변인

(1) 외부활동

대면학습, 오프라인사교활동, 운동, 여행, 예술현장관람, 오프라인쇼핑 등 6개 항목을 5점 척도(1=많이 감소~5=많이 증가)로 조사하였다. 평균은 대면학습 2.44($SD=.979$), 오프라인사교활동 1.79($SD=.956$), 운동 2.66($SD=1.095$), 여행 1.56($SD=.875$), 예술현장관람 1.60($SD=.873$), 오프라인쇼핑 2.07($SD=.935$)이었다. 모든 활동량이 감소하였다. 분석은 6개 항목을 통합한 '외부활동' 변수로 하였다. 6개 항목의 신뢰도는 .785이며, 평균은 2.07($SD=.693$)이었다.

(2) 온라인활동

원격학습, 온라인사교활동, 온라인쇼핑 등 3개 항목을 5점 척도(1=많이 감소~5=많이 증가)로 조사하였다. 평균은 원격학습 3.63($SD=.866$), 온라인사교활동 2.73($SD=1.314$), 온라인쇼핑 3.72($SD=1.063$)이었다. 사교활동은 줄고, 학습과 쇼핑은 조금 증가했다. 3개 항목의 신뢰도가 .371로 낮아서 통합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3개 항목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였다.

(3) 미디어이용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잡지·책,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7개 미디어 매체 이용량의 변화를 5점 척도(1=많이 감소~5=많이 증가)로 조사했다. 평균은 텔레비전 3.90($SD=.857$), 종이신문 2.88($SD=.884$), 라디오 3.27($SD=.899$), 잡지·책 3.12($SD=.887$), PC 3.86($SD=.859$), 스마트폰 4.21($SD=.834$), 태블릿PC 3.57($SD=.826$)이었다. 종이신문을 제외한 6개 매체의 이용이 모두 늘었으며,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증가했다. 분석은 7개 항목을 합친 '미디어이용' 변수로 하였다. 7개 항목의 신뢰도는 .721, 평균은 3.57($SD=.531$)이었다.

(4) 미디어정보문제

미디어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을 4개 항목에서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 4= 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조사했다. 항목별 평균은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가 너무 많았다' 3.53($SD=.935$),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3.39($SD=.953$), '허위정보 및 오정보가 많아 혼란스러웠다' 3.42($SD=.971$), '비슷한 뉴스가 필요 이상으로 반복됐다' 3.91($SD=.883$)이었다. 모든 항목에

서 '그렇다'고 응답했다. 분석은 4개 항목을 합친 '미디어 정보문제' 변수로 하였다. 4개 항목의 신뢰도는 .712이고, 평균은 3.56($SD=.686$)이었다.

(5) 가계경제변화

코로나19 확산 후에 달라진 가계경제를 단일척도(1= 많이 어려워짐, 2= 조금 어려워짐, 3= 변화 없음, 4= 조금 나아짐, 5=많이 나아짐)로 조사했다. 평균은 2.39($SD=.840$)이었다. 가계경제가 조금 어려워졌다.

3) 매개변인

매개변인인 사회문제관심은 2개 항목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조사했다. 평균 점수는 '정치나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3.60($SD=.846$), '정치나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3.44($SD=.936$)이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2개 항목의 신뢰도는 .792이고, 평균은 3.52($SD=.812$)이었다. 관심이 많아졌다.

3. 연구방법

SPSS 25 프로그램으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명목변수인 성은 더미변수로 바꿔서 분석했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한다. 분산팽창인자(VIF)가 10이상,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높다[28]. 이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인자의 범위는 1.053~1.330이고, 공차한계는 .752~.944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IV. 연구결과

1.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문제1은 성, 연령, 외부활동, 온라인 활동(원격학습, 온라인사교활동, 온라인쇼핑), 미디어이용, 미디어정보문제, 가계경제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성, 연령을 제외한 5개 변인과 코로나블루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코로나블루는 외부활동($r=-.323$, $p<.001$), 가계경제변화($r=-.345$, $p<.001$)와는 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미디어이용($r=.306$, $p<.001$), 미디어정보문제($r=.275$, $p<.011$), 원격

학습($r=.175, p<.01$), 온라인쇼핑($r=.244, p<.01$)과는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분산분석은 회귀모형을 충족했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수정 r^2)은 .305이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성은 영향을 주었고($\beta=.132, p<.01$), 연령의 영향력은 없었다. 외부활동($\beta=-.215, p<.001$), 가계경제변화($\beta=-.235, p<.001$)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미디어이용($\beta=.213, p<.001$), 미디어정보문제($\beta=.157, p<.01$)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개 온라인 활동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표2).

표 2.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
 Table2. Factors to affect Corona Blue

변인	표준화계수(β)	t
(상수)		9.723
성	.132	2.950**
연령	-.008	-.178
외부활동	-.215	-4.484***
원격학습	.024	.502
온라인사교활동	-.021	-.444
온라인쇼핑	.095	1.938
미디어이용	.213	4.232***
미디어정보문제	.157	3.402**
가계경제변화	-.235	-5.011***

*** $p<.001$, ** $p<.01$

성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블루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성($M=3.83, SD=.551$)이 남성($M=3.60, SD=.541$)보다 코로나블루 증세가 더 심했다($p<.001$).

2. 사회문제관심의 매개효과

연구가설1은 '미디어 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배런과 케니의 매개변인 모형으로 분석하였다[29]. 이 매개모형은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고, 2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주고, 3단계는 독립변인을 통제하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매개변인은 '완전매개효과'를 갖고 있으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주는 영향력이 1단계의 영향력보다 작으면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1단계(β

$=.213, p<.001$), 미디어이용이 사회문제관심에 영향을 주는 2단계($\beta=.146, p<.01$), 미디어이용을 통제하고 사회문제관심(매개변인)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3단계($\beta=.212, p<.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어서 매개모형은 충족되었다.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주는 영향력($\beta=.182, p<.001$)은 매개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1단계에서의 영향력($\beta=.213, p<.001$)보다 작아서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표3). 연구가설1은 채택되었다.

표 3. 사회문제관심의 매개효과
 table3. Mediating effects of interest in social issues

		영향력 경로	표준화계수(β)	t
매개 조건	1	미디어이용-> 코로나블루	.213	4.232***
	2	미디어이용-> 사회문제관심	.146	2.643**
	3	미디어이용 통제 후 사회문제관심 -> 코로나블루	.212	4.519***
매개변인 효과	미디어이용의 코로나블루 영향력($\beta=.213$) > 매개변인 통제 후 미디어이용의 코로나블루 영향력($\beta=.182$) -> 부분매개효과			

*** $p<.001$, ** $p<.01$

V. 결론 및 논의

코로나19 이후 코로나블루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우울증 환자가 매우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성, 연령, 외부활동, 3개 온라인 활동(원격학습, 온라인사교활동, 온라인쇼핑), 미디어 이용, 미디어정보문제, 가계경제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코로나블루가 더 심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19]와 유사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어서 코로나블루는 모든 국민의 문제인 것으로 해석됐다. 외부활동증가, 가계경제개선은 코로나블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줄고, 가계경제는 어려워졌다. 이는 코로나블루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연결망과 사회활동 참여가 우울증을 줄인다는 선행연구[19], 경제상황 악화가 우울증을 심화

시킨다는 선행연구[17] 결과가 확인되었다. 온라인활동들은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활동이 크게 늘고, 사람들이 이를 일상생활로 받아들이면서 온라인활동은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미디어이용, 미디어정보문제 등 2개의 미디어 관련 변수는 코로나블루 증가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22]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우울증을 유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외에 텔레비전 등 올드 미디어도 많이 이용할수록 코로나블루를 증가시켰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량이 늘면서 외부활동과 대면관계가 줄고, 미디어 중독 증세는 많아졌기 때문에 풀이된다. 미디어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성, 허위보도, 과잉보도 등의 측면에서 부정평가가 많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블루의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불안감을 들었는데[5],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 증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관심은 부분매개효과를 주었다. 미디어이용은 직접 또는 사회문제관심 증가를 통해 코로나블루를 증가시켰다. 미디어이용이 늘어나면 사회와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빠기 때문에 실상을 알수록 더 우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 코로나블루와 같은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는 외부활동을 늘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성들과 경제적 약자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난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언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잦은 오보와 선정성 보도로 인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기관과 언론사들은 재난보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다[30]. 그러나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뉴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언론은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자는 미디어 중독 예방 등 미디어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코로나블루의 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우리 사회의 우울증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내용에 한계가 많았다. 향후 심층적인 조사항목을 설계해서 양적,

질적 조사를 하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이다.

References

- [1] S.E. Lee, “Effects of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8(5), pp.17-27, 2022.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7>
- [2] J.S. Park, H.Y. Kim, S.J. Lee, “COVID-19 related anxiety among young women and its influence on government and community trust: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Corona Blue and Corona Red”,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2(3), pp.95-117, 2021. DOI <https://doi.org/10.53865/KSPA.2021.11.32.3.95>
- [3] J.Y. Kim, J.H. Park, M. Moise, B.G. Yoon, Y.S.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o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10(3), pp.1-10, 2022.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3.1>
- [4] Health Insurance & Assessment Service News Release, “Analysis of the treatment records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last five years (2017-2021)”, 2022.6.24. <http://www.hira.or.kr>.
- [5] S. A. Cho, “Corona Blue”, *HIRA ISSUE*, 15, pp.1-7, 2020.
- [6] Y.H. Lim, “COVID-19 Blues: A Big Data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3(2), pp.829-852, 2021.
- [7] N. Aslam, K. Shafique, A. Ahmed, “Exploring the impact of COVID-19 related fear, obsessions, anxiety and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ults in Pakistan”, *Journal of Mental Health Training, Education and Practice*, 16(4), pp. 313-321, 2021. DOI <https://doi.org/10.1108/JMHTEP-10-2020-0074>
- [8] B.W. Kim, “A Study on Adolescents’ Life Changes and Subjective Happiness resulted from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8(4), pp.75-82, 2022.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22.8.4.75>
-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ults of 「the COVID-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in second quarter of 2022”, 2022.8.10..

- [10]A. B. Patel, S. Kumar, "A sociological study of suicide during COVID-19 in India", *Mental Health and Social Inclusion*, 25(1), pp.76-87, 2021. DOI 10.1108/MHSI-09-2020-0061
- [11]Yonhapnews, "Korea's Suicide Rate tops OECD", 2021.9.28.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73600002>
- [12]H.S. Lee, "Depression and Related Risk Factors in the Elderly with a Focused on Health Habits, Mental Health, Chronic Diseases, and Nutrient Intake Status: Data from the 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 Korean Diet Assoc*, 24(2), pp.169-180, 2018.
- [13]M.W. Kim, J.A. Lee, "How Do Physical Activity, Internet Use, and Stress/Depression Differ Based on Body Mass Index (BMI) : From the 2014 Korea Media Panel Survey",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4), pp.317-320, 2016.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6.24.4.317>
- [14]B.J.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Using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1)",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5(2), pp. 165-172, 2020. DOI <https://doi.org/10.21032/jhis.2020.45.2.165>
- [15]J.H. Lee, S.G. Yeom,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assion on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9(1), pp.479-484, 2023.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479>
- [16]I.S. Nam, S.R. Yeom,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gular exercis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2, pp.109-126, 2013.
- [17]D.H. Lee, Y.J. Kim, D.H. Lee, H.H. Hwang, S.K. Nam, J.Y. Kim,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pp.2119-2156, 2020.
- [18]J.S. Han, J.H. Choi, S.O. Lee, Y.R. Kim, S.S. Kim, "The Effect of Empathy on Anxiety and Depression in COVID-19 Disaster: through Risk Perception and Indirect Trau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 pp.609-625,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11.6>
- [19]B.J. Kim,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Factors Affect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4), pp.695-706, 2020. DOI <http://dx.doi.org/10.21097/ksw.2020.11.15.4.695>
- [20]Y.J. Choi, H.I. Gang, D.W. Kim, G.H. Seong, W.J. Han, "Investigation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Depression: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8(3), pp.45-53, 2017.
- [21]S.H. Choi,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Anxiety,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f ju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8(2), pp.15-22, 2022.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22.8.2.15>
- [22]J.Y. Park, C.H. Han, J.H. Oh, "The Effect of Digital Technologies on Adolescent Mental Health: The Role of Parenting Style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8), pp.1-13,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8.001>
- [23]S.R. Lee,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and Media Use According to the Addiction of Communication Media",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7), pp.255-260, 2013.
- [24]I.S. Nam, "Gender Differentials in Depress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2), pp.159-177, 2014.
- [25]J.H. Lee, "New Media and their Political Impacts o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36(1), pp.209-240, 2014.
- [26]Korea Press Foundation, *Changes in the everyday life after COVID-19 in Korea*, 2020.
- [27]J. J. Song,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for Writing a Research Paper*, 21cbook, pp.105, 2013.
- [28]J. J. Song,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for Writing a Research Paper*, 21cbook, pp.152, 2013.
- [29]R. M. Baron, D. A. &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al,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1986.
- [30]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Disaster News Guideline.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 이 논문은 2022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
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GCU-20220702
0001)